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6·15 공동선언을 되새기면서

답겨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는 '21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실무 회담이 개최되었다. 인도적 협력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화해 협력의 정신을 심어 주기도 했다. 남북 대화의 틀이 있었기에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여 9·19 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혹자는 화해 협력 정책 10년 동안에 북한에 퍼 주고, 끌려다니고, 퍼준 결과가 핵무기로 돌아왔다고 비판하기도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에 퍼 주지 않고, 현금이 들어가는 관광도 중단했다는 데 북한 핵은 폐기되지 않았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고, 심지어 전작권 전환 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대청도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자고 나면 대북 전단을 살포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은커녕

대남 적개심만 심화시켰다.

박근혜 정부 4년도 이명박 정부 5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 통일의 환상에 빠져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남북 간에는 대화의 틀도 없어지고, 오고 가는 길목도 없어지고, 심지어 연락채널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남북 관계의 암흑기로 만들었다. 결국 화해 협력 정책 10년과 대립 대결 정책 9년을 되돌아볼 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남북이 함께하는 화해 협력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민중정부 3기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000만 한민족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계승·발전시켰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이행이라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두 사업은 북핵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없이 남북 관계 복원 어렵고, 금강산관광 재개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험 사업 재개의 출발점에서 북핵 문제와 연계한다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인들도 재개에 조금쯤을 버려야 한다. 경험 사업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경험 사업 재개의 시간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북한도 문재인 정부의 유연한 입장에 핵 고도화, 외세 배격 주장으로 기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대남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연락사무소 복원과 서해·동해 공 통선 채널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복원이 기본이다. 남북 관계가 복원되어야만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시동을 걸 수 있다.

社說

임명 강행하려면 야당에 명분도 주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하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더 부드러운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했어야 하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사실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505명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1%에 달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3일 김상조 공적평가위원장 전격 임명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장관 임명을 발미로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집권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더 부드러운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했어야 하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사실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505명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1%에 달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3일 김상조 공적평가위원장 전격 임명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치매 국가 책임제에 지자체도 선도적 대응을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6만 명을 웃도는 광주·전남 지역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치매 환자는 1만7000여 명, 전남은 4만6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양 지역에 치매지원센터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는 47곳인데 이 가운데 25곳이 서울에 편중돼 있는 것이다. 모두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 2023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광주는 5개 자치구, 전남은 22개 시·군에 각각 한 곳씩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더욱 반가운 것은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일찍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다 치

매 유병률도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2020년에는 치매 환자가 2만1000명, 2030년에는 3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치매 유병률도 2016년 11.64%로, 전국 평균(9.9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다.

광주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지자체의 치매 관리 책무가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품질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그늘이라 할 치매 환자 급증 현상은 결국 국가와 자치단체 등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치매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도적인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예수 성심 성월과 가없는 마음



조발그니
사산동성당 주임신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중세 때 수도자들을 통해 시작됐다. 대중성을 띠며 교회 전반으로 퍼져나간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1765년 클레멘스 13세 교황은 예수 성심의 '공적 공경'을 허락했고, 1856년 비오 9세 교황은 예수 성심 축일을 '전 세계 교회의 축일'로 확대했다. 1956년 비오 12세 교황은 '예수 성심 축일 설정 100주년'을 맞이해 예수 성심 공경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회칙을 반포하면서 예수 성심 공경을 널리 권장했다. 교회는 1969년 전례 개혁 때 예수 성심 축일을 '대축일'로 격상하였고, 이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령 대축일'을 지낸 뒤의 금요일로 지정했다. 올해는 6월23일이다.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또 예수 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예수 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성심 신심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이다.

예수의 성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없는 마음이다. 복음에서 가없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마태오복음에서 네 번(9장 36절, 14장 14절, 18장 27절, 20장 34절) 마르코복음 두 번(1장 41절, 6장 34절), 루카 복음 세 번(7장 13절, 10장 33절, 15장 20절) 나왔고, 가없는 마음을 들게 한 것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었다.

지난 1987년 그리고 1980년, 그리고 1960년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은 주로 젊은 청년의 죽음이었다. 이한열, 박종철, 김주열, 5월 광주의 시민군들 그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리고 그 죽음을 보고 미안한 마음과 가없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억울함에 같이 분노하였던 것이다. 이번 촛불과 대통령 해임의 배경에는 세월호 아이들과 물다포를 맞고 죽어간 농민 백남기의 죽음이 있었다. 그들의 죽음을 모른 척 하지 않았던 많은 이들의 가없는 마음이 있었다. 아직도 길을 지나는 차량과 사람들의 가방에 노란리본이 있고, 우리가 백남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평범한 시민의 마음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업으로 하는 이들은 다른 것 같다.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업자'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5·18 기념식이나 현충일 기념식에서 다리를 길게 뻗고 자거나, 청문회에서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당론으로 세우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은 가없는 마음이 들지 않은 이들이거나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이들이 아닐까?

저 멀리 런던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해? 지나가다 가게에 상중(喪中)이라는 메모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 누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누군가 내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세 번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래서? 해야 하고 누가 슬퍼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내 일처럼 울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예수의 마음, 예수 성심이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표를 찍어 응원 해주었으면 그 마음을 받아야 한다. 뉘든 반대하느라 국민의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누가 그들을 사랑해주었는지 잊지 말기를 바란다.

기 고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향한 도전



이 동진
광주시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주U대회의 유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독특한 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대회는 대회시설 인프라를 부족한 시민휴식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대시켰고, 광주의 문화적 역량 확산과 광주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시는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라는 또 한 번의 신화를 꿈꾸고 있다. 광주수영대회는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시시설로 대체하는 등 유사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0%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대회 유치과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대회 시설기준 등에 따라 대폭 증가한 사업비로 인해 중

양부처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온적인 자세의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회지원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개발과 인내력 있는 설명과정이 필요하였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부터를 부족한 시민휴식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대시켰고, 광주의 문화적 역량 확산과 광주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는 지난 5월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시장이 3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부터는 중앙정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회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확정으로 안정적 대회준비 기반이 마련된 한편,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주어진 총사업비 내에서 고효율 대회를 치르기 위한 절감방안 마련과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수입 확보 노력,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방안, 지속가능

한 대회유산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수영대회가 스포츠인들만이 아닌 광주시민 모두의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방안 마련과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도 필수 과제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하며 이와 연계해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려움을 헤쳐 온 과정을 디딤돌 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매진한다면 또 한 번의 신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오는 2019년 7월이면 열리는 광주를 찾아오는 수많은 선수단의 도전과 열정을 실어 나르는 희망길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광주가 전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향수길 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빌어본다.

無等鼓

“너나 잘하세요” 하면 거의 자동으로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지난 2005년 상영된 ‘친절한 금자씨’다. 형기를 마치고 갑구 문을 나선 금자(이영애 분)가 두부를 내밀며 출소를 환영하는 전 도사에게 차갑게 내뱉은 말이 바로 “너나 잘하세요”다. 이 말은 ‘남이야 무슨 일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라는 말과 한 뼛이다. 영화의 내용도 그랬다. 금자는 국가 사법 체계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단행한다. ‘유아 납치와 살인’의 누명을 쓰고 불합당한 금자는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 13년이라는 기나긴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온 금자는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백선생(최민식 분)을 처단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시작한다. 백 선생은 어린이들을 유괴해 바로 살해하고 그 후에 몸값을 받아 내는 살인마다. 유아극질 끝에 백 선생을 납치, 폐교에 가둬 놓는데 성공한 금자는 그가 네 명의 아이를 더 유괴·살해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다. 금자는 혼자만의 복수를 포기하는 대신 백 선생에게 살해당한 아이들의 가족을 폐교로 ‘친절하게’ 불러 ‘친절하

사적(私的) 복수

리’한다. 얼마 전, G3 딸을 성추행한 상담 교사를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을 ‘따라’ 판결이 논란이 됐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한때 법조계에선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적 복수’였다”는 점도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사법 체계는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아직도 법보단 주먹에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사적 복수’를 꿈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그만큼 더 필요할 것 같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정지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